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생산자물가, 팬데믹 이래 가장 많이 감소
- WSJ: 12월 미 소매 판매, 전월 대비 1.1% 감소
- WSJ: 연방노동부장관, “노동자 부족 채우기 위해 이민자 필요”

[미국 금융]

- The Economist: 미 투자은행들 고금리 시대에 허덕인다
- Bloomberg: 골드만삭스, “너무 빨리 소비자 금융 방향으로 갔다”

[부동산]

- CNBC: 일주일 새 모기지 신청 건 25% 늘어... 모기지율 9월 이래

[글로벌 경제]

- McKinsey: Davos 회의,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CNN Business: DAVOS 리더들, “중국 재오픈으로 글로벌 경제 살아난다”
신중한 낙관주의

[한국 경제지 기사들]

- 한경: 美철강업체, 한국 등 8개국 철강제품에 반덤핑 제소
- 연합뉴스: 솔츠 독일 총리 "IRA 관련해 EU와 미국 무역 전쟁 없을 것"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회계법인들, 회계사 없어 해외에서 채용한다
- CNBC: 명품 시장 주도하는 Z세대...사치품 소비층 더 젊어진다
- Bloomberg: 마이크로소프트, 1만명 감원...12억달러 부담
- WSJ: 내부 추천, 새 직장으로 가는 좋은 무기
- WSJ: 2022년 글로벌 IT 지출 감소
- Bloomberg: 삼성, 인도와 1억 1천만 달러 생산 인센티브 놓고 줄다리기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Producer Price Index Declines by Most Since Start of Pandemic

미 생산자물가, 팬데믹 이래 가장 많이 감소

- 12월 미 생산자물가가 팬데믹 발생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여력을 주고 있다.
- 연방 노동부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 12월 최종 수요에 대한 생산자물가지수가 0.5% 떨어져 지난 2020년 4월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 12월 하락은 상품 가격 특히 에너지와 식품 가격 급락이 주도했는데 이들 2가지 변동성 심한 품목을 뺀 핵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월에 0.1%, 전년 대비 5.5% 상승했다.
- 물가 압력이 둔화되고 있는데 공급망 체인이 정상화되고 상품 수요가 세계적인 입장에서 둔화되면서 수요 공급이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Bloomberg 기사

WSJ: U.S. Retail Sales Fell 1.1% in December**12월 미 소매 판매, 전월 대비 1.1% 감소**

- 이번 주 수요일 연방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연말 시즌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이는 2022년 동안에 월간 기준으로 가장 큰 감소 폭이며, 2개월 연속 감소세이다.
- 이는 소매업체들이 과도한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이른 시기에 대폭적인 할인을 실시하면서 10월 쇼핑이 늘어났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자 수요 냉각, 더 저렴한 상품으로의 이동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 전자제품, 의류, 온/오프라인 선물 부문의 매출이 줄었고, 외식은 0.9% 감소했다. 차량과 가구 판매도 큰 폭으로 줄었다.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하락해 물가 압력이 다소 완화되는 듯한 모습이다.

WSJ 기사

WSJ: America Needs Immigrants to Make Up Worker Shortfall, Labor Secretary Says**연방노동부장관, “노동자 부족 채우기 위해 이민자 필요”**

- Martin Walsh 장관은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은 노동자 부족 때문이며, 이민과 실습생 제도(apprenticeship)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말했다.
- 그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World Economic Forum의 일자리 미래 섹션에서 이와 관련 미국은 이민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현재는 좋은 이민 정책이 없다고 말했다.
- 그는 또한 미국이 모든 젊은이를 대학에 진학시키는 데보다는 실습생 제도에 더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이 근로자를 양성하고 재교육하기 위해 실습생 제도에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WSJ 기사

[미국 금융]

The Economist: Investment banks are struggling in a high-interest-rate world

미 투자은행들 고금리 시대에 허덕인다

- 투자은행들을 아래 2가지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은행의 거래 비즈니스가 변동성과 불확실할 때 잘 나가지만, 자문 부서 서비스는 시장이 안정적일 때 성공적이다.
-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가 지난해와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그러나 결과는 서로 다르다.
- 뱅크오브아메리카와 JP 모건과 같은 대형 소비자은행이 있는 곳은 금리가 될 때 잘하고 있다. 이들 두 은행의 경우 수익에 대한 높은 이자율의 순 효과는 현재 긍정적이다.
- 모건스탠리의 경우 비투자은행 비즈니스는 잘했으며 수익이 골드만삭스보다 덜 감소했다. 웰스파고의 경우는 큰 소비자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소비자들의 계좌를 부당하게 관리함에 따라 17억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골드만삭스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부실 대출을 위한 충당금을 너무 많이 준비했다. 전체 직원의 6.5%를 줄였다.
- 미 대형은행들이 최근 수년간 큰 경제적인 충격을 겪었는데 이를 통해 이들 은행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잘 대처했는지 알 수 있다.

The Economist 기사

Bloomberg: Solomon Says Goldman Pushed Too Quickly Into Consumer Banking

골드만삭스, “너무 빨리 소비자 금융 방향으로 갔다”

- Goldman Sachs Group Inc.는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소비자 영역으로의 진출에 지나치게 공격적이어서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했다"고 CEO David Solomon은 다보스 회의에서 말했다.
- 이 은행은 애플 카드와 특수 대출 플랫폼인 Greenshky를 포함한 소매 사업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이 같은 운영으로 지난 3년 동안 38억 달러의 세전 손실을 기록했다.
- 그는 그러나 좋은 예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서 Apple과의 파트너십을 예로 들었다.

Bloomberg 기사

[부동산]

CNBC: Mortgage demand jumps nearly 28% in one week, as interest rates drop to lowest point in months

일주일 새 모기지 신청 건 25% 늘어... 모기지율 9월 이래 최저치

- 이처럼 수개월간 모기지율이 낮아지면서 모시기 시장의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지난주만 해도 6.42%에서 6.23%로 줄었다.
- 이에 따라 주택 구매를 위한 모기지 신청 건수가 꺾충 뛰어 한 주일 사이에 25%나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 신청 건수가 줄어든 상태다.

CNBC 기사

[글로벌 경제]

Mckinsey: Why Davos matters more than ever

Davos 회의,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2023년 World Economic Forum은 글로벌 리더십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 우선 세계화의 종말은 틀린 말이다. 세계화는 재해석될 뿐 사라지는 건 아니다. 첫 번째 이유는 원자재, 제조 상품, 사람들, 자본의 지역 간 흐름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 경제는 후퇴하기 힘들 것이다. 어떤 지역도 섬처럼 고립되기 불가능하고, 모든 경제 지역은 핵심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국가에 의존한다. McKinsey Global Institute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를 묶고 있는 경제적인 유대감은 강하기에 거꾸로 가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 둘째 이유로, 저마다 국경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국경은 본질적으로 세계적이다. 국가와 각 경제는 3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1) 미래의 팬데믹 예측을 포함한 글로벌 혼란 상황에서 복원력을 구축하느냐 하는 측면 2) 화석연료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낮은 비용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측면 3) 모두가 번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느냐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문제는 세계 최대 기업들 리더와 국내 및 국제정책 입안자들의 참여 없이 해결하기 힘들다.
- 올해의 경우 이 같은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게 되는 데 기록적으로 많은 숫자의 리더들이 참석한다. 처음 열린 후에 52년 만에.
- 올해 회의는 5가지 테마에 집중한다.

1. 내일을 위해 근육을 키우는 복원력(Resilience): 글로벌 혼란은 모든 영역에서 발생한다. 공적인 그리고 민간 차원의 지속 가능한 공동 노력은 한 가지 방법이다.

2. 제로 탄소를 위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탄력성 간의 균형을 위한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배출량 제로에 도달하려면 전 세계가 현재 투자하는 것보다 매년 3조 5000억 달러를 더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 리더의 결정과 투자가 필요하며, 지역별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탈동조화가 아닌 다변화로 세계화를 재해석 하기(Reimagining globalization): 글로벌 교역의 40%가 집중되어 있고, 일부 국가들이 핵심 상품을 다른 모든 지역에 공급한다. 긴장이 커질수록 무역 관계를 관리하는 이들은 다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4. 경쟁력으로 만드는 수용성(Inclusion): 현재의 진행 속도로 보면 세계 경제의 성별 격차를 줄이는 데 151년이 걸리고, 경영진이 성평등에 도달하는 데 29년이 걸리며, 인종적 다양성에 도달하는 데 24년이 걸린다. 글로벌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5. 각 부문 전반에 걸쳐 혁신을 찾은 우주 경제(space economy): 새로운 우주 경제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더 저렴한 발사, 더 작은 인공위성, 더 많은 투자 덕분에 많은 기업들은 R&D를 수행하고, 지구에서 불가능한 일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된다.

McKinsey 기사

CNN Business: No recession after all? Business leaders are more hopeful as China reopens

DAVOS 리더들, “중국 재오픈으로 글로벌 경제 살아난다” 신중한 낙관주의

- 다보스의 World Economic Forum이 최근 설문 조사한 결과 주요 이코노미스트의 3분의 2는 올해 세계는 침체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참가자들은 신중한 낙관주의로 바뀌고 있다. 중국이 재오픈함에 따라 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중국이 갑자기 봉쇄령을 없애면서 향후 미국과 유럽의 경제 둔화를 상쇄시킬 정도의 소비 지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
- 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의 의장인 Laura Cha는 중국 재오픈이 주요한 사건이며 성장의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S&P Global의 최고경영자인 Douglas Peterson은 유럽과 영국, 미국이 앞은 침체 전망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오픈하면서 글로벌 고통을 상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CNN Business 기사

[한국 경제지 기사들]

- 환경: 美철강업체, 한국 등 8개국 철강제품에 반덤핑 제소

- **연합:** 솔츠 독일 총리 "IRA 관련해 EU와 미국 무역 전쟁 없을 것"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Tax Season Is Coming, and These Firms Can't Find Enough Accountants in the U.S.

회계법인들, 회계사 없어 해외에서 채용한다

- 미전역에 회계사 인력이 동이 난 상태다. 연방 관련 자료들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미 전역에 30만명 이상의 회계사가 일자리를 그만두었다.
- 사정이 이러다 보니 중소 회계법인은 고객 회사들의 감사와 개인 세금 신고 업무를 처리할 회계사 직원을 찾지 못해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인력을 찾고 있다.
- 반면에 KPMG, PricewaterhouseCoopers와 같은 대형 회계법인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고객 업무를 지원토록 해외 회계사들을 채용해왔다. 그러나 현재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들 중소 회계법인들의 경우 가족 비즈니스, 개인, 작은 회사들에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구인하고 있다.
- 뉴저지 Nutley의 한 회계법인 대표인 Dan Geltrude는 지난해에 인도에서 10명의 회계사를 채용했는데 15명으로 더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일부 작은 회계법인들의 경우 비즈니스를 위한 대외 감사 서비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인력 부족 때문.

WSJ 기사

CNBC: Gen Z is driving luxury sales as wealthy shoppers get younger 명품 시장 주도하는 Z세대...사치품 소비층 더 젊어진다

- Bain & Co의 보고서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지난해 명품 시장의 성장을 모두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Z세대와 더 어린 알파(13세 미만) 세대의 소비는 2030년까지 명품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렇듯 사치품을 구입하는 부유한 쇼핑객들이 더 젊어지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기성세대보다 3배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명품 브랜드들은 SNS와 온라인 판매 물결을 타고 젊은 세대에 매력 어필을 성공했다.
- 명품 판매는 지금까지 금리 상승, 경기 둔화, 높은 인플레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2022년 명품 판매의 전 세계 매출이 3천8백10억 달러로 22% 급증했고, 올해 명품 매출은 중국 경제의 회복세와 미국, 유럽의 성장세에 따라 3~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CNBC 기사

Bloomberg: Microsoft Plans 10,000 Job Cuts, Will Take \$1.2 Billion Charge

마이크로소프트, 1만명 감원...12억달러 부담

- 마이크로소프트가 테크 산업 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직원의 약 5%인 1만 명을 감원할 계획이며, 이 조치로 2분기 12억 달러의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감원은 일부 분야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요 전략 영역(key strategic areas)”인 AI 분야로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주로 엔지니어링 부서에서 감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 한편 아마존 역시 이번 주 수요일 1만 8천명 이상의 감원을 시작할 예정이며, 메타, Salesforce 등의 해고도 진행 중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2분기 매출 증가율은 2%로, 2017년 이후 가장 느린 분기 성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WSJ: Land a New Job, With Help From the Inside

내부 추천, 새 직장으로 가는 좋은 무기

- 직장에서 해고된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 내부자의 추천을 이용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 자동화된 고용 시장에서 업계 내부 누군가의 지지를 받는 것은 다른 수백 명의 지원자들보다 더 두드러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재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SilkRoad Technology Inc.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채용자의 30% 이상이 내부자의 추천을 받았다.
- 한편 추천을 요청할 때는 전략적인 접근과 잠재적인 거절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 네트워크를 활용해 목표 기업과 연결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WSJ 기사

WSJ: Global IT Spending Decreased in 2022

2022년 글로벌 IT 지출 감소

- IT 컨설팅 및 리서치 기업 Gartner Inc.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IT 지출은 4조 3천 8백억 달러로 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디지털 비즈니스 틀에 지출하는 비용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드문 사례이다.

- 보고서는 팬데믹 기간 원격 근무 지원을 위한 지출이 급증한 이후 PC, 스마트폰 및 기타 장치들이 가장 큰 감소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기기 부문의 지출은 2022년 10% 이상 감소하고, 올해 5.1% 감소해 약 6천8백 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 따라서 앞으로 많은 테크 기업들이 어려운 시장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분야로의 “선택과 집중” 투자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보안, 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빠르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WSJ 기사

Bloomberg: Samsung Spars With India Over \$110 Million Production Incentives

삼성, 인도와 1억 1천만 달러 생산 인센티브 놓고 줄다리기

- 삼성전자 인도 사업부가 인도 정부로부터 90억 루피(1억 1천만 달러)에 달하는 생산 인센티브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는 인도를 전자제품 제조업 중심지로 만들고자 한 모디 총리의 핵심 정책이었는데, 애플의 계약 제조업체 Foxconn 인도 사업부의 경우 2022년 이미 36억 루피의 혜택을 받았다.
- 하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애플의 계약 제조업체인 Foxconn과 Wistron과 달리 직접 장치를 제조하고, 소매업체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회계 평가가 다르게 진행되었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인도 정부가 기기의 제조 비용에 따라 현금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 한편 인도는 삼성전자에게 한국을 제외한 최대 스마트폰 시장이며, 2022년 3월까지 약 30억 달러의 기기를 인도에서 제조해 수출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 당국 "대형 은행들, 너무 크고 복잡해 쪼개져야 할 수도"

미국 월가 대형 은행들의 규모가 너무 크고 복잡해 쪼개져야 할 수 있다고 마이클 쉬 미국 통화감독청(OCC) 청장 대행이 밝혔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쉬 청장 대행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은행들이 너무 크고 복잡해 "통제·위험 관리 실패, 뜻밖의 부정적인 일들이 너무 자주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은행이 경영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조직의 규모와 복잡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쉬 청장 대행은 당국의 규제에도 은행들이 긴 시간 동안 결함을 해결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사업을 분리하고 운영을 축소해 복잡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